

사상최대 전력대란 위기(危機)!!!



그러나...

국민들 탓이 아닙니다!

2012년 평균 전기요금 99.3원!

주택용(123.7원), 일반용(112.5원), 산업용(92.8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주택용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여 몇 배에서 몇십 배에 이르는 추가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값싼 가격으로 공급받는 산업용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국민에게만 자나깨나

“절전”하라고 합니다!!



공공 민영화는 재앙!!



**전기는 재벌 대기업이 다 쓰고
국민은 허리띠 졸라매라 합니다**

전력산업 민영화 반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재벌 대기업에 막대한 이윤 보장해주는 전력산업 민영화 즉각 철회하라!!



**여러분은 전기요금의 3.7%를 더내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정부는 이 돈으로 재벌, 기업들에게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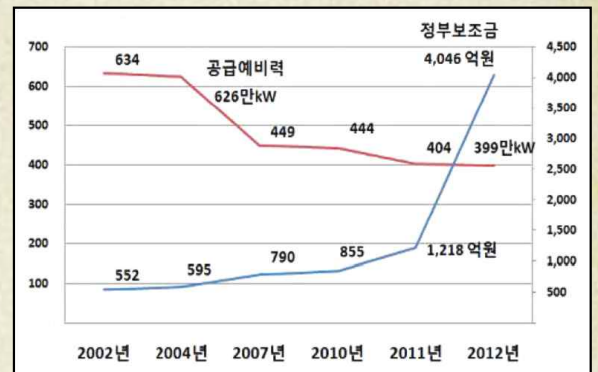
혹시 전기요금 고지서에 나와 있는 준조세 성격인 3.7%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력기금)을 알고 계십니까?

전력기금이란, "전력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정부가 설치한 기금을 말하며, 이기금은 대체에너지 생산 지원사업/ 전력수요 관리사업/ 전원개발 촉진사업/ 도서벽지 전력공급 지원사업/ 연구개발사업/ 전력산업 관련 석탄·가스산업 및 집단에너지사업 지원사업/ 전기안전 조사·연구·홍보지원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7년부터 (전기)공급예비력이 줄어들면서 최근들어 국민들에게는 전기 과소비를 탓하며 누진율을 적용하고 절약을 호소하지만, 실제로는 재벌, 대기업을 포함한 산업체에서 일정량의 전력소비를 줄이면 전력기금에서 이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서민들은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단전되어 촛불을 켜고 자다가 화재로 사망하는 현실인데, 2012년 전력기금에서 산업체에 보조한 금액이 4,000억원이 넘습니다. 서민들의 전기절약은 당연하고, 산업체의 전기절약은 돈으로 보상해주는 정부정책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공급예비력 감소와 정부보조금 증가〉



『폭증하는 전력수요에 민간발전소는 웃는다?』

지난 10년 간 전력 사용량이 폭증한 가운데 한전의 적자는 매해 늘어 부채가 55조에 달한다. 하지만 민간 발전소의 당기순이익은 꾸준히 늘어 그 규모가 20배 넘게 성장했다.

작년 한 해 당기순이익만 6000억 원에 달하는 민간발전기업도 있다.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는 한전 자회사와 매해 고수익을 달성하는 민간 발전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 일부 전문가들은 민간발전소에게 각종 특혜가 주어진다고 설명한다...

- 2013. 7.2 방영된 MBC PD수첩「전력대란의 감춰진 진실」중에서

**민자발전의 천문학적이익! 국민여러분은 동의하십니까?
발전노조는 재벌만 살찌우는 민자발전을 반대합니다.**